

이정후, 데뷔 첫 '연타석 홈런' 맹활약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양키스타디움에서 연타석 홈런을 쏘아올리며 팀의 역전승을 견인했다.

이정후는 14일(한국 시간) 미국 뉴욕주 양키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25 MLB 뉴욕 양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4회와 6회 연타석 홈런을 날리는 등 3타수 2안타 4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했다.

샌프란시스코의 5-4 역전승을 이끄는 활약이었다. 팀의 5득점 중 혼자 4점을 올린 이정후는 경기 후 최우수선수(MVP) 격인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에 선정됐다.

지난해 미국 진출 후 첫 뉴욕 원정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양키스와의 3연전에서 홈런 3방을 포함해 9타수 4안타, 7타점을 올리며 맹타를 휘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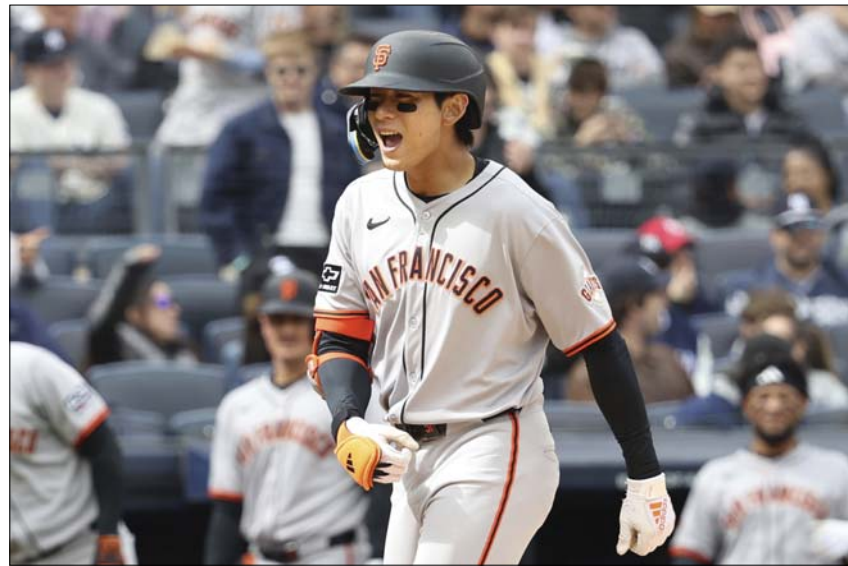
지난 12일 양키스와의 3연전 첫 경기에서 시즌 마수걸이 홈런을 쏘아올린 이정후는 전날 경기에서 2루타를 때려냈고, 이날은 홈런 두 방을 몰아쳤다.

경기 후 MLB닷컴은 경기 최우수선수(MVP) 격인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에 이정후를 선정했다.

이정후는 1회초 첫 타석에서 잘맞은 타구가 중견수 정면으로 향하면서 범타로 물러났다.

그의 방망이는 이후 타석에서 날

미국 진출 후 첫 한 경기 멀티 홈런 3타수 2안타 4타점 2득점...경기 MVP 선정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13일(현지 시간)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 6회 초 3점 홈런을 친 후 기뻐하고 있다.

카롭게 돌아갔다.

샌프란시스코가 0-3으로 끌려가던 4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는 양키스 좌완 선발 투수 카를로스 로돈을 상대로 우중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이정후는 풀카운트에서 로돈의 6구째 스트라이크존 한복판 슬라이더를 잡아당겼다. 타구는 시속 103.2

마일(약 166.1km)로 날아갔다. 비거리는 123.7m였다.

방망이가 돌아오른 이정후는 6회 역전을 이끄는 홈런까지 쏘아올렸다. 1-3으로 끌려가던 샌프란시스코는 6회초 크리스티안 코스의 내야안타와 윌리 아다메스의 볼넷으로 1사 1, 2루의 찬스를 얻었다.

뒤이어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는

로돈의 5구째 가운데 높은 시속 81.7마일(약 131.5km) 커브를 노려쳐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역전 3점포를 작렬했다.

지난해 MLB에 진출한 이정후가 한 경기에서 2개 이상의 홈런을 날린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지난해 5월 어깨 부상을 당해 시즌을 일찍 접은 이정후는 37경기에서 홈런 2개를 치는데 그쳤는데 올해에는 양키스와의 3연전에서 홈런 3개를 날렸다.

이정후는 8회초에는 볼넷을 골라 나갔다. 그는 맏 채프먼의 볼넷과 마이크 야스트렘스키의 내야 땅볼로 3루까지 나아갔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333에서 0.352(54타수 19안타)로 올라갔다. 시즌 타점은 11개로 늘었고, 이날까지 16득점을 올렸다. OPS(출루율+장타율)는 1.13에 달한다.

이정후의 홈런으로 역전에 성공한 샌프란시스코는 7회초 상대 실책으로 1점을 추가해 5-4로 이겼다.

샌프란시스코는 양키스와의 이번 3연전을 2승 1패로 마쳤다. 샌프란시스코가 양키스 원정을 워닝 시리즈로 마친 것은 인터리그가 도입된 2002년 이래 처음이다.

패조의 타격감을 자랑한 이정후는 15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원정 경기에 나선다.



V-리그, 여자부 20주년 BEST7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2024-2025 V리그 시상식', 조원태 한국배구연맹 총재가 여자부 20주년 BEST7에 선정된 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리베로 임명옥, 세터 이호희, 미들블로커 양호진, 조원태 총재, 미들블로커 정대영, 아웃사이드 히터 김연경, 한송이, 아포짓스파이커 황연주. /뉴스

영광 출신 복싱 이우민, 1차 방어전 승

생활복싱대회·이우민 WBF 아시아챔피언 방어전 성료



영광군에서 지난 13일 치러진 '2025 생활복싱대회 및 이우민 WBF 아시아챔피언 1차 방어전'이 많은 관중의 성원과 이우민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1부 생활복싱대회와 2부 프로복싱으로 나뉘어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특히 영광군 출신의 아시아챔피언인 이우민 선수의 첫 번째 방어전으로 기대를 모았다.

프로복싱 경기에 총 5명의 선수를 출전시킨 채승곤 KO복싱클럽은 3승 1무 1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오픈경기인 4라운드 4경기부터 불꽃튀는 판치와 끊임없는 투지를 발휘했다.

또한 대회의 백미였던 아시아챔피언 이우민 선수(채승곤 KO복싱클럽)와 한국챔피언 유도일 선수(Y-GYM)의 WBF 웰터급 아시아챔피언 1차 방어전은 그야말로 차

원이 다른 경기력을 선보이며 보는 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다.

10라운드를 끝까지 채우며 혈투를 벌인 두 선수는 결국 KO승부를 내지 못해 판정까지 갔지만 3-0 완승으로 이우민 선수의 1차 방어가 성공하며 성원 속 대회가 마무리됐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우리 군이 낳은 복싱챔피언 이우민 선수의 1차 방어전이 승리로 마무리 되어 영광군민의 일원으로서 가슴이 벅차고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유망한 종목과 선수육성, 대회유치에 힘써 제2, 제3의 이우민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영광=서충민 기자

KIA, SSG 잡고 하루 만에 끝져 탈출...두산, 4연패 끊어

11-5로 승리...패트릭 위즈덤, 시즌 6·7호 홈런

KBO리그 끝져로 추락했던 '더펜딩챔피언' KIA 타이거즈가 하루 만에 최하위에서 벗어났다.

KIA는 지난 1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솔베르 KBO리그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11-5로 이겼다.

2연패 사슬을 끊은 KIA(7승 10패)는 10위에서 9위로 올라섰다.

시즌 7패째(9승)를 기록한 SSG는 2위에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KIA의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5타수 3안타 2홈런 3타점)이 시즌 6, 7호 홈런을 쏘아 올리며 공격을 진두지휘했다. 위즈덤은 홈런 단독 선두에 등극했다.

KIA 선발 투수 야담 올러는 7회까

지 안타 2개, 볼넷 1개만 내줘 2실점을 기록, 시즌 2승째(1패)를 따냈다.

SSG 선발 마운드에 오른 문승원은 5이닝 동안 4점을 헌납해 시즌 첫 패배(1승)를 떠안았다.

2회말 위즈덤의 선제 투런포로 기선을 제압한 KIA는 3회 수비에서 2점을 허용해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KIA는 경기 중반에 재차 홈런포를 가동해 리드를 가져왔다.

5회말 김태균의 2루타, 김규성의 희생번트로 일군 2사 3루에서 오선우가 2점 홈런을 작렬했다.

6회말에는 빅이닝을 만들었다.

위즈덤, 최원준의 안타와 김태균의 볼넷으로 만든 1사 만루에서 김



규성이 1타점 중전 안타를 쳤다. 이어 송영진의 폭투가 나오면서 3루주자 위즈덤이 홈을 통과했고, 박찬



제64회 2025. 4. 18.(금)~4. 21.(월)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3회 2025. 4. 30.(수)~5. 2.(금)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엘로우시티스타디움 외 종목별 경기장

- 주최** 전라남도체육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 주관**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추진위원회
- 후원** 전라남도 / 전라남도교육청 / 장성군

